

한국문화교류 소식

14호 2014년 12월 15일 발행 • 발행인 박갑수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121-813 서울시 마포구 삼계로 20 근신빌딩 별관 201호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칼럼

발해의 고토(故土)에도 봄이 오는가?



한승조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고려대 명예교수

2014년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와 동북아평화연대, 최재형장학회가 주관한 ‘고려인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탐방’ 행사에 참여하여 러시아 연해주에 다녀왔다.

대학 교수 생활을 정년퇴임한 후, 나의 관심은 기존 나의 전공이었던 국내정치·비교정치·정치사상의 분야로부터 국제정치나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문제로 옮겨져 왔다. 그래서 재외동포들의 문제도

관심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시민운동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바람이 나를 이번 방문단에 참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필자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민간인들 간의 국제적인 교류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어느 지역에서라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었고 옛날 고구려가 멸망한 후 발해국의 고토(故土)이며 현재도 한인들이 많이 산다는 시베리아 연해주 지역도 유력한 후보지 중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2시간 30분의 비행으로 닿을 수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는 그 거리만큼 심정적으로도 가깝게 느껴졌다. 이리저리 돌아본 블라디보스토크는 군항이라는 인상과 정부 관청 중심의 도시라는 인상이 짙게 풍기는 항구도시였다. 러시아 정교회 사원과 거리의 건물들은 지난 세기의 고풍스런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었으며, 레닌의 동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이색적이었다. 한반도에서 이주한 고려인들이 모여 살았다는 신한촌은 블라디보스토크 교외에 있었다. 이곳은 일

제강점기에 한국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항일독립지사들이 모여들었던 곳으로 1937년 스탈린이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이곳에서 버스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우수리스크는 그에 비하면 민간 중심의 촌락처럼 보였다. 이주한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다. 안중근 의사 등 항일 독립 운동가들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한 최재형 선생의 생가에 이어 스탈린시대에 한인동포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화물차 시발역인 라즈돌리에 역사(驛舍)도 구경하였다. 작고 허름한 석조 건물은 황폐한 주변 때문인지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서러움이 더욱 아프게 가슴으로 와 닿았다.

우리는 다시 우수리스크의 항일유적지와 발해의 옛 성터를 돌아보았다. 맑고 깨끗하게 갠 하늘, 아직도 뜨거운 가을 날씨에 발해의 성터는 간 곳 없고 잡풀만 우거져 있었지만 광활하게 펼쳐진 대지를 바라보며 이곳에서 고구려 옛 땅을 찾은 기개를 다시 회복할 기회가 펼쳐져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한·러 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해 힘과 마음을 모을 때라는 생각을 했다.

‘고려인 이주 150주년 연해주 축제’에 참석한 후 한·러 협력에 대한 나의 생각은 더욱 긍정적이 되었다. 출연자들이나 모인 관객들 모두, 고려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인종적인 화합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은 매우 다채로워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

러졌으며, 한국의 문화 또한 러시아에 잘 보급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한민족은 본래 북방민족의 한 지류였다. 시베리아, 몽고, 만주, 그리고 연해주는 모두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영역이다. 그 중 연해주는 고구려와 발해의 혼이 숨 쉬는 곳이며, 재외동포 이주 역사를 처음 시작한 곳으로 그 역사가 매우 깊은 곳이다. 이곳에 고려인이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정착하였으며, 조국이 국권을 상실하였을 때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다. 이후 강제 이주로 고려인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다시 제2의 고향인 연해주로 이주하고 있다.

여기에 사할린 동포, 중국 조선족, 북한의 노동자, 대한민국의 기업이 진출하고 있어 현재 연해주는 한민족이 모여드는 지역이 되었다. 바야흐로 우리는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서 국경이라는 장벽이 없어져가며 사람과 물자, 기술, 문화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국제 경쟁력과 함께 국제 협력이 강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옛 발해의 故土(고토)인 연해주! 광활한 영토를 달리던 기상과 문화가 융성했던 우리 조상의 지혜가 살아나 한민족의 경제·문화적 영토가 새롭게 회복되고 번창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여기에 아시아태평양양공동체,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의 민간외교적 역할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발해의 고토가 다시 우리의 활동무대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한다.



최재형 선생님 생가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축제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 이제는 한류의 불꽃을 당겨라!



남은영

AUL 통·번역 한국어학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의파견 교수

201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정홍원 국무총리님께서 다녀가셨다. 아직까지는 한국인에게 이곳이 꽤 생소하겠지만 아제르바이잔은 국가적으로 긴밀한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 중의 한 곳이다. 낮은 나라, 아제르바이잔에도 최근 한류 열풍의 조짐이 조심스럽게 불고 있으며, 큰 폭의 증가세는 아니지만 꾸준히 한국어 교육도 유지되고 있다. 현재 이곳의 한국어 교육은 네 곳의 대학교와 세 곳의 민간기관, 세종학당(시범운영기간) 및 한글학교로 구성된다. 중국 및 아시아 지역,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옆 나라 터키에 비해 이곳의 한국어 교육은 아주 작은 불씨에 불과하다. 그러나 굼직함 정부 사업(건설, 기계, IT 등)에서 한국 기업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어 현지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 회사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늘고 있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제르바이잔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94년 9월 아제르바이잔언어대학교(Azerbaijan University of

Languages, 이하 AUL)에서 통·번역학부의 영어학과 의 복수전공으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9월에 정식으로 통·번역학부 한국어학과 로 승격되었다. 또한 AUL은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한국어학과 중에 유일하게 대학원 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다음으로 바쿠 국립대학교(Baku State University, 이하 BSU)는 2007년에 동양학부 한국학과를 개설하였고, 동양학부 내에는 한국학 외에 일본학, 중국학이 소속되어 있다. 헤제르대학교(Khazar University)는 2012년부터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으며 교내에 한국센터가 있어서 한국영화상영제, 한국 음식축제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나흐치반국립대학교(Nahchivan State University)는 바쿠가 아닌 나흐치반 공화국에 위치한 대학교이며, 2012년부터 한국어 강의를 시작되었다. 나흐치반은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으로 현재는 육로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도 교내 한국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과 국제관계학과에서 진행되는 한국학 수업이 있다. 민간기관으로는 2007년 SEBA(Seoul-Azerbaijan Culture Association, 이하 세바)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센터가 있으며, 2009년부터 시작된 ILC(International Leagues Center)의 한국어 수업과 2013년에 시작된 바탐다르 지역의 동양학원이 있다. 그 밖에 재외동포를 위한 바쿠 한글학교와 시범사업 중인 세종학당이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2012년부터 AUL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고 있고 매년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진행하나 한국어 학습자의 수는 큰 폭으로 증가되지는 않고 현상 유지만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는 단연 한류 열풍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한류 열풍으로만 한국어 학습자의 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로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을 들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의 지배를 받아왔던 역사적 아픔이 있는 곳이며, 현재는 아르메니아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란의 북쪽 지역을 남아제르바이잔이라고 명하는 등 주변국과의 크고 작은 분쟁을 치르고 있다. 자국의 힘을 키우기 위해 타국 문화를 제재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예로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국영 방송에서는 2001년부터 러시아어로 된 방송을 송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자국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드라마를 포함 다른 프로그램 방영을 제한했다. 이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꾸준하게 유지를 해 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현지에서 곳곳하게 버터 온 한국어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이 아닐까 싶다.

또한 이런 곳에서도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페이스북 그룹, 이하 한사모)을 보면 이곳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 한사모의 존재만으로도 한국은 이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나라임이 증명되었다. ‘한사모’는 한국을 좋아하는 현지인(90%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페이스북에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회장 피단은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일 정도로 한국어에도 능통하다. 이 모임은 2014년 11월 현재 가입 인원만 천 명을 넘으며 오프라인에서도 70~80명 정도가 주기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K-pop 댄스 공연 등의 이벤트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료는 터키 쪽 사이트를 이용한다. 한사모 회원들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번역 없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향유하고 싶어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고 했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의 발전과 확립을 위해서는 한류가 좀 더 보편화 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 수가 늘어야 한국어 교육도 발전을 하게 된다. 아제르바이잔은 1994년부터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지만 아제르바이잔어로 된 한국어 교재도 없고 한-아 사전도 아직 정식으로 출판된 것이 없다. 이와 비교하여 중국어 교육의 경우 우리보다 출발을 늦었지만 막강한 자본과 인력을 앞세워 AUL에서 아제르바이잔어로 된 중국어 교재가 출판되었고, BSU에서는 공자학당과 사이버 중국어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최근 11월에 열려 현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 ‘2014 한국 영화제’와 같이 현지인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보여 줄 수 있는 지원이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한류로 한국어 수업을 희망하는 자가 아주 조금씩 늘고 있다. 실제로 필자도 지하철을 타거나 교내에 있으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을 걸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과 한류는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이 둘 사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관심이 아제르바이잔에도 펼쳐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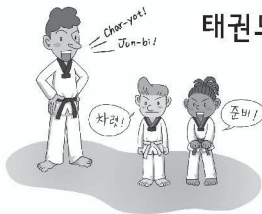
한국어

뉴욕 지역 한국어반 수강생, 1년 만에 58% 증가

미 동부지역 공립학교 한국어반 수강생이 1년 만에 절반 이상 증가해 한국어 세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뉴욕한국교육원에 따르면 한국어반 수강생 규모가 2013~2014학년도 2,503명에서 올해 3,954명으로 5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11월 19일, 교육원에서 열린 '2014~2015학년도 한국어 채택 지원사업' 예산안 심의 결과에서도 한국어반 신규 개설 학교를 중심으로 실사를 거쳐 내주 중 26개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어 채택 지원 사업은 한국 정부가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 해외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박희동 뉴욕한국교육원 원장은 “뉴욕 지역의 한국어 채택 확산은 한국어정규 과목추진회 등 동포사회의 노력과 염원의 결과”라며 “한국 정부의 지원 확대도 큰 기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출처_ 뉴욕중앙일보 2014. 11. 21.



태권도

LA 지역 공립학교생 태권도 품새 시범

LA 한국문화원(원장 김영산)은 11월 15일, LA 페어팩스 고등학교에서 '2014 공립학교 태권도 및 한국 전통공연 수업 수료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LAUSD(LA 통합 교육구) 29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2,700명은 학부모 앞에서 지난 10주 동안 배운 태권도와 한국 전통 공연을 선보였다.



출처_ 미주한국일보 2014.11.19.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고려인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단 참가

‘고려인이주150주년기념사업추진회’가 주최하고 동북아 평화연대, 최재형 장학회와 본회가 주관한 고려인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단 80여명이 9월 19일(금)~22일(월)까지 3박 4일 간, 블라디보스톡, 우수리스크를 방문하였다. 고려인 이민 역사를 기리고 한민족 교류 및 남·북·러 협력의 미래가 펼쳐질 현장을 체험하였으며, 150주년 기념 축제 및 만찬 행사에 참여하였다.



■ 고 이광규 이사장, 제8회 세계한인의 날 정부 포상에 훈장수여

10월 7일(월), 제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재외동포 사회와 고국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훈·포상 전달식에서 본회 고 이광규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였다. 고 이광규 이사장은 ‘재외동포의 간디’라 불릴 만큼 재외동포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문제 해결에 노력하였다.

■ 제9회 경희사이버대 한국어 및 한국 문화교육 사례 공모전 시상식

본회가 후원한 ‘제9회 경희사이버대 한국어 및 한국 문화교육 사례 공모전’ 시상식이 11월 26일(수),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열렸다. ‘대상’은 이은주 선생님(미국)의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한국인의 정’이 차지했고, 본회 이사장 상인 ‘우수상’은 블로그 제작을 통한 한국어 수업을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한 김현영 선생님이 수상하였다.

■ 파독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 고국방문단 만찬 행사 참석

10월 23일(목), 양재동 The K-Hotel에서 진행된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 고국 방문단 만찬 행사에 본회 박갑수 이사장 이하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파독 근로자들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이들을 격려하였으며, 앞으로 한독문화교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ICKC 문화탐방

• 10월 28일(화), 태권도원

무주에 위치한 전 세계 태권도인을 위한 최대 수련 공간 태권도원을 탐방하였다. 태권도 박물관 및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였고 적상산 안국사와 머루와인 동굴 등을 감상하며 가을의 정취를 맘껏 느꼈다.



• 11월 25일(화), 인천가톨릭미술대학교 & 조광호 신부님 건축유리공예 연구실

인천가톨릭미술대학교 학장을 역임한 조광호 신부님의 건축유리공예 연구실을 탐방하였다. 이어 판화, 회화, 스테인드글라스, 이콘화, 드로잉 등 40여 년간 펼친 다양한 작품 또한 감상하였다.

50만 명의 운명을 바꾼 책! 방송대학 교재가 이제 당신을 응원합니다!

졸업생 50만 명, 재학생 18만 명.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의 방송대 학생들은
방송대 교재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내용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40년간 사랑받은
방송대 교재가 이제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한국어의 국제화를 응원하는 방송대출판문화원 추천도서-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읽기

Readings in Korean Culture for Foreigners (국영문 합본)
김해옥 지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역음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역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지식의나눔



에프[스]티[에]

press.knou.ac.kr

2014 후원하여 주신 분

2014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시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시 후원금은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강성구, 강재근, 구병진, 권 박, 김건길, 김동현, 김명수, 김성열, 김영규, 김용구, 김응철, 김정부, 김정수, 김정은, 김진택, 김진원, 김호일, 문영호, 박경명, 박원출, 박익근, 박재만, 박재희, 박청수, 배대환, 서영택, 서형숙, 성호동, 송현철, 심재익, 위호인, 이대근, 이병욱, 이상철, 이석종, 이영섭, 이용선, 이인재, 이정남, 이한설, 이항구, 이현목, 임동훈, 전영섭, 정범식, 정순영,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오딜리아, 조춘연, 최준영, 표재순, 홍계화, 황경애, 신한금융지주회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가나다순, 2014. 12. 15. 현재)

총액 : 248,770,000원

후원금 보내주시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공고 제 2012-166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울사랑 공연과 함께 하는 'ICKC 송년회'

201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ICKC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 ICKC 송년 행사는 우리가 문화진흥사업으로 후원하고 있는
마리소리음악연구원 의 송년의 밤 행사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의 멋과 소중함을 느끼는 행복한 연말이 되길 바라며,
2015년 새해에도 회원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이 함께하는
어울사랑 송년의 밤



일시 : 2014년 12월 29일 저녁 7시

장소 : 일신홀 (용산구 한남대로 98 일신빌딩 1층 02-790-3364)

주최 : 어울사랑 (이병욱과 어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주관 : (사) 마리소리음악연구원

후원 : 문화유산 국민신탁 한국문화국제교류 운동본부

일신문화재단 충청신문 MastBio

평창묵은지 Korea (주)고려E&C PyunAn (주)편안택시